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금 지원 현황 및 소득재분배 효과'는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에 해당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2
<http://sri.kostat.go.kr> 2022



통계청

통계개발원

노동 영역의 주요 동향

권현지 (서울대학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이 급격히 회복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10월 64.3%를 기록한 경제활동참가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 63.6%에 비해 0.7%p 높았다.
- 같은 맥락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는 고용률과 취업률에서 거의 모든 노동자 집단이 팬데믹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회복 속도가 더뎠던 반면,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 상황이 경기흐름을 반영하는 정도가 뚜렷했다.
- 노동력 구성과 관련, 2022년 비정규직 비중은 37.5%로 팬데믹 이전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전년 대비 2.1%p 증가했던 2021년보다 0.9%p 감소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비임금근로자 중 1인 자영업자의 비중 증가다.
- 노동시간 변화가 컸다. 54시간 이상 일하는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한 반면 단시간 취업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이다. 2022년 2분기 노동시장 호조와 함께 단시간 취업자가 약간 줄고 36~53시간대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이런 상황은 2022년 3분기 단시간 노동자가 크게 늘고 표준시간대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완전히 역전되었다. 한편 2021년 크게 증가했던 재택·원격근무 활용은 2022년 다소 둔화되었다.
- 팬데믹 기간 평균 명목임금 수준에 큰 변동은 없었지만,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격차는 소폭 늘었다. 또한 낮은 명목임금 상승률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험 가입률의 격차는 여전히 크지만, 비전형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 증가가 눈에 띈다.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2022년 상반기, 노동시장이 예년의 상황을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 다소 하락이 있었음에도 2022년 10월 64.3%에 달한 경제활동참가율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0월과 비교해도 0.7%p 높은 수치였다. 취업자 증가 규모도 컸다. 2022년 3/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78만 명, 2019년 동기 대비 104만 명 늘었다. 사실 감염병 대응에 대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자신감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3차 대유행기였던 2021년 1월 60.9%까지 떨어졌던 경제활동참가율은 곧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3월 62.5%, 6월 63.7%, 9월 63.0%, 12월 62.6% 등 안정적 회복세를 이어갔다. 이듬해 오미크론 변이로 폭증한 감염 수에도 회복세는 꺾이지 않았다.

실업률 역시 2021년 6월에서 2022년 8월까지 2019년 동월에 비해 줄곧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2021년 12월 제외). 특히 2022년 8월은 지난 10년간 실업률 통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요컨대 2021년 중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의 양적 지표는 한국의 노동시장이 팬데믹의 직접적 영향력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러시아 전쟁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인플레이션 등과 관련된 경제불안정으로 노동시



장 상황 악화가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주요 노동동향은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10월까지의 노동시장 추이에 집중해 코로나19 회복기 노동시장 변화를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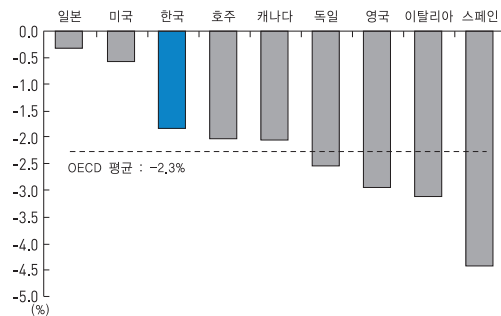
최근 국제 노동시장 동향: 노동력 부족과 실질임금 하락

최근 경제회복 국면에서 서구 여러 나라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에 직면했다. 예컨대 호주에서는 2022년 3월 15~34세 취업자가 2020년 3월에 비해 22만 4천 명 줄었고, 영국에서도 구인수(job vacancies)는 2020년 1~3월간 79만 6천 개에서 2022년 동기간에 128만 7천 개로 대폭 늘었다. 반면 팬데믹 기간 전면 봉쇄를 피하고, 외국인력 규모 변화 역시 상대적으로 적었던(2019년 86만 3천 명, 2020년 84만 8천 명, 2021년 85만 5천 명 등) 한국의 경우, 최근 일부 산업에 노동력 부족문제가 시작되고 있지만, 회복기 노동시장 수급문제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경기회복과 경제활동 관련 총량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경제적 곤란을 경험한 개개인이 회복되었다고 바로 말하기는 어렵다.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2022년 8월 자료를 보면 17시간 미만 불완전 고용의 비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격차는 2019년 8월에 비해 커진 상태다. 또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하고 있다. [그림 V-1]의 OECD 주요 국가 통

계는 한국에서도 2022년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노동시장 활성화와 구체적인 삶의 조건 사이에 벌어진 틈을 암시한다.

[그림 V-1] OECD 주요국의 실질임금 하락, 2022



주: 1) 통계치는 2021년 대비 2022년의 실질임금 예상 변화율(%)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Edition 2022/1), 2022.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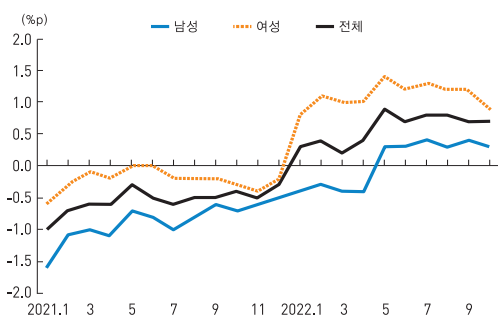
코로나19 국내 감염이 본격화된 2020년 3월부터 백신 접종 이전까지의 팬데믹 1년간 경제활동참가율은 줄곧 전년 대비 1%p 내외로 낮았다. 그러나 2021년 2분기 이후 회복세를 타기 시작한 경제활동참가율은 2022년 1월 이후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이며, 2019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상회하는 상승곡선을 그렸다. 특히 2022년 5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64.9%(여성 55.6%, 남성 74.5%)로 2019년 5월 전체 64.0%(여성 54.2%, 남성 74.2%)에 비해 0.9%p 높았다(그림 V-2).



팬데믹 초기 경제활동에 있어 가장 심대한 충격을 받은 집단은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초기 양상은 다소 변화되었는데, 여성 고용은 남성에게 비해 경기 변화에 한층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점이 두드러졌다.

특히 2021년 1월 이후 남성의 경우 2022년 5월까지 비교적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최근 약간 하강곡선으로 돌아선 반면, 여성은 해당 기간 한층 극적인 오르내림이 있었다. 가족돌봄 수요의 변화, 감염병으로 인한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인 대면 서비스 산업과 임시·단기 고용의 교차 지점에 여성고용이 밀집되어 있었다는 점이 참가율 변화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주었다. 2022년 1월 들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극적으로 증가한 것도 여성이 먼저 주도하였고 남성은 그로부터 4개월 후에야 예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그림 V-2]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1.1-2022.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한편,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의 패턴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그림 V-3). 우선 남성의 경우

20~29세 집단은 2021년 이후에도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20대 여성과 달리, 여전히 일자리를 기다리고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중후반기에 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4%p에 가까운 낮은 참가율을 보이던 20대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복귀는 2022년 3월 이래 급속하게 증가해 8월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노동시장의 주력을 형성하는 30~40대의 경우에도 2021년 초중반까지는 저조한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였으나, 역시 2022년 들어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30대와 40대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참가율 자체가 높아 회복의 여지가 다른 집단에 비해 적고, 산업 및 고용형태 상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안정적인 부문에 노동력이 분포한다는 점을 그 이유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을 주도한 집단은 20대와 함께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중고령 노동자였다. 반등한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는 정부의 공공근로 확대와 2022년 상반기의 2차례 대규모 선거에 동원된 임시고용 확대 등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패턴은 남성에게 비해 조금 더 복잡하다.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이 들쭉날쭉했다. 60대 이상의 경우 2021년 이래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2022년 상반기에 급격히 증가했다. 남성과 같이 일시적 일자리 증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인 집단은 20대이다. 2021년 중반기 이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2021년 내내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던 30대는 2022년 초 반등세를 만들어냈고, 40대는 2022년 5월에 들어서야 가파르기로 코로나19 이전 상황에 도달했다. 40대는 감염상황이나 그에 따른 경기 변화와 비교적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집단이다. 가족돌봄 역할에 얽매이고 민간 부문 서비스 일자리 제한되며 공공근로에 동원되기에는 아직 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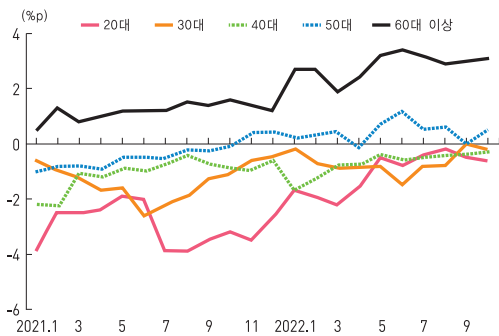
은 해당 집단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V-4]는 취업자 수 증감을 나타낸다.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 발생 1년간 취업자 수 감소가 지속되었지만, 백신 접종의 확산과 함께 방역 상황이 달라진 2021년 3월경부터 취업자 수는 증가세를 그리기 시작했다. 3/4분기에 다소 하강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22년 극적인 반등세를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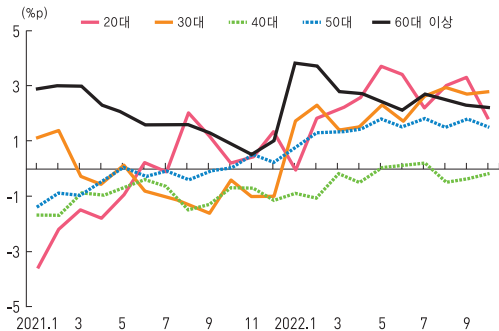
2022년 2월 이후 매월, 2019년에 비해 100만여 명에 달하는 취업자 수 증가가 이어졌다. 취업자 수의 증가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동일했는데 전체 취업자 수의 규모를 고려할 때 여성 취업자 증가가 더 현저했다.

[그림 V-3] 성 및 연령집단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021.1-2022.10

1)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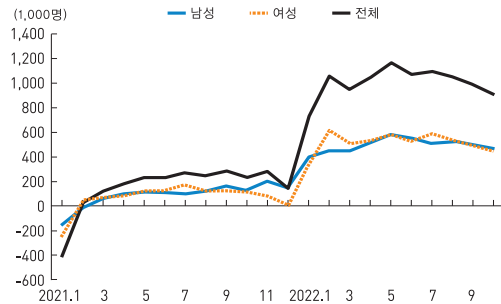


2) 여성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4] 성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2.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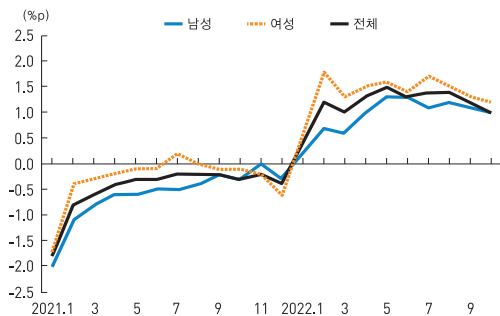
고용률과 실업률

2021년 고용률은 남성 70.0%, 여성 51.2%로 2020년(남성 69.8%, 여성 50.7%)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2019년 평균(남성 70.7%, 여성 51.6%)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는 이런 느린 회복추세를 압도하는 급격한 고용률 상승을 기록했다. [그림 V-5]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남성과 여성 모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여성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다(2022년 2월의 경우 2019년 동월 대비 남성 0.7%p, 여성 1.8%p 증가).

[그림 V-5] 성별 고용률 변화, 2021.1~2022.10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표 V-1〉은 2021년, 그리고 2022년 5월과 10월의 연령집단별 고용률과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제시한 것이다. 팬데믹과 거리두기의 영향 하에 있었던 2021년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집단에서 2020년 대비 소폭의 고용률 증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2022년 현재까지, 특히 5월경에 전년 동월 대비 높은 고용률 증가가 확인되었다. 10월에도 회복세는 유지되지만, 5월 전후 관찰되었던 상승세는 대부분의 집단에서 꺾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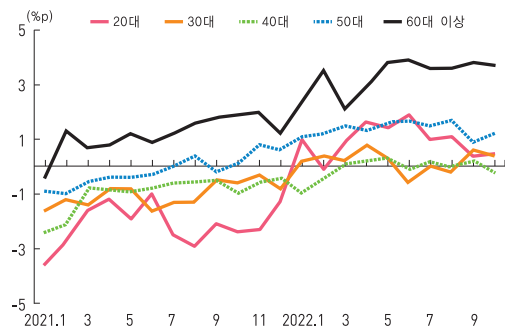
〈표 V-1〉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2021, 2022.5, 2022.10

	2021년				2022년 5월				2022년 10월			
	고용률 (%)		전년 대비 증감 (%p)		고용률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p)		고용률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p)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체	70.0	51.2	0.2	0.5	72.4	53.8	1.9	1.7	72.1	53.7	1.3	1.3
20대	55.1	59.6	0.4	2.8	58.6	64.1	3.3	4.9	58.8	62.5	2.9	1.0
30대	88.0	61.3	-0.1	0.0	89.4	63.7	1.1	2.0	89.1	65.2	1.0	3.3
40대	90.1	64.0	0.2	0.2	91.3	65.3	1.2	1.0	91.2	65.1	0.8	0.7
50대	85.9	64.2	0.4	1.1	88.1	67.6	2.0	2.8	87.6	67.4	1.1	1.9
60대 이상	53.5	34.0	0.5	0.2	57.2	36.8	2.6	0.7	57.3	37.3	1.8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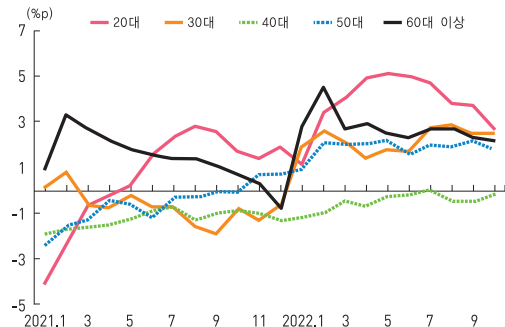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그림 V-6] 성 및 연령집단별 고용률 변화, 2021.1~2022.10

1) 남성



2) 여성



주: 1) 통계치는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그림 V-6]은 2021년 이래 성별, 연령별 고용률 증감을 추세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역시 2022년 매우 큰 폭의 변화를 겪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2022년 1월까지의 3차 유형의 여파가 남아 있었지만, 2022년 5월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급격한 고용률 증가가 있었다. 피고용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20대 여성(고용률 64.1%로 2020년 대비 7.1%p 증가)과 남성(고용률 58.6%로 2020년 대비 4.1%p 증가)의 회복이 가팔랐다. 특히 3차 대유행기인 2021년 1월 4.1%p 떨어졌으나, 회복기에 들어선 6월 이후에 회복해 극적인 진폭을 보여주는 20대 여성 고용률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

대유행기였던 2021년 1월에 이어, 회복기의 6월에도 2019년 동월 대비 1.6%p의 감소를 보였던 30대 남성 고용률은 2022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회복되었다. 20대나 50대 이상에 비해 증가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남성 30대와 40대 상반기 고용률은 모두 코로나19 이전 상황을 넘어섰다. 단, 6월 이후 다소 부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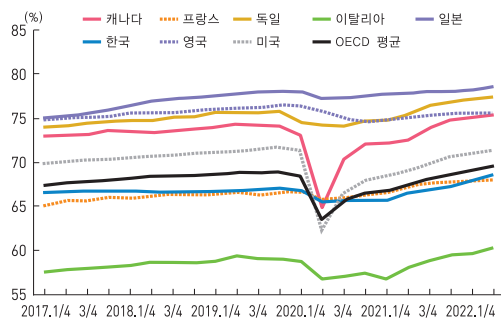
한편, 여성 40대는 2021~2022년 상반기 내내 2019년 동월 대비 고용률을 회복하지 못한 유일한 집단이다. 여성 30대는 2022년 1월 이후, 여성 50대는 2021년 11월 이후 2019년의 고용률 수준을 따라잡았으나, 여성 40대는 2022년 5월에도 2019년 동월 대비 0.3%p 낮은 고용률 변화를 기록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거리두기 정책이 철회된

2022년 2/4분기 상황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성과는 국제적으로 볼 때 비교적 양호하다(그림 V-7). 고용률의 경우 68.6%로 OECD 평균 69.5%에 근접한다. 고용률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낮은 여성 고용률 때문이다.

한국과 유사한 고용률 패턴을 지녔던 일본의 경우 서구 국가보다 높은 78.5%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최근 여성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높아진 수준이 유지되었다. 다만, 최근 일본의 여성 고용률 증가는 여성 파트타임 노동의 규범화와 관련이 있다. 전일제 비교치(full-time equivalent)로 계산할 때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그림 V-7] OECD 주요 국가의 고용률, 2017.1/4~202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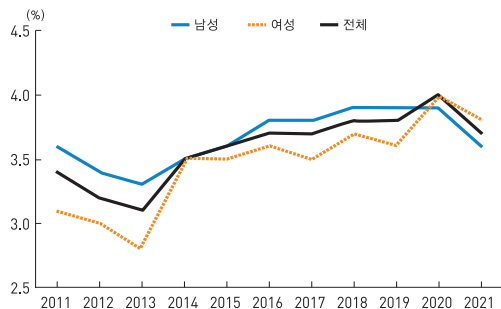


출처: OECD, Employment rate, 2022.11.

한편, 2021년의 연간 실업률은 3.7%로 2019년 3.8%, 2020년 4.0%보다 낮았다. 여성이 남성 3.6%에 비해 0.2%p 높은 3.8%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2019년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대체로 남성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었던 여성 실업률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남성을 상회했다(그림 V-8). 가구소득 보전요구 증가와 일자리 불안정, 30~40대 여성 일자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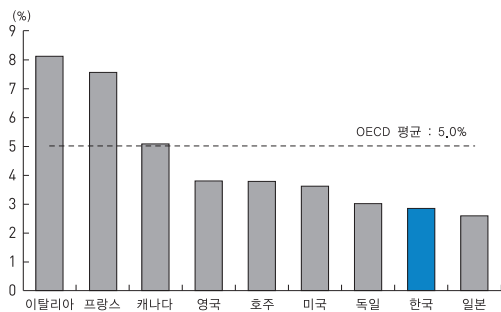
[그림 V-8] 성별 실업률 변화, 2011~202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한국의 실업률은 [그림 V-9]가 제시하듯 OECD 평균(5.0%)이나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 시기 한국의 노동시장 성과는 비교적 양호하다.

[그림 V-9]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 2022.2/4



출처: OECD, UnEmployment Rate, 202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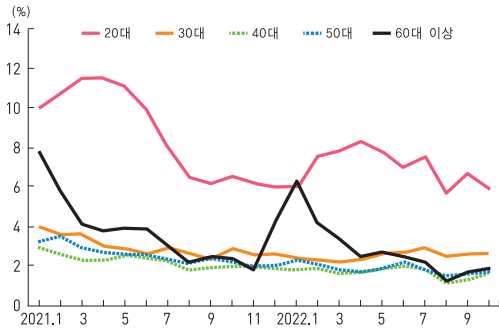
보다 최근의 추세를 담은 [그림 V-10]은 2021~2022년 10월에 초점을 맞춰 성별 실업률의 변화 추세를 연령집단별로 나누어 보았다. 우선, 2022년 10월 실업률은 2.4%(남성 2.4%, 여성 2.4%)로 2021년 10월 2.8%(남성 2.8%, 여성 2.7%)에서 0.4%p 낮아져, 2022년 노동시장 전반의 활성화 기초를 반영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도 0.6%p 낮은 수치이다.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한 집단은 노동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높은 20대 청년과 60대 이상 중고령층이다. 중고령층의 실업률을 크게 좌우하는 요인은 경기보다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단기 일자리 공급이다. 두 해 모두 예산집행이 종료되는 연말, 연초에 남녀 모두 실업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20대의 경우 서비스산업 경기요인의 작용이 중요한 것 같다. 거리두기가 크게 완화된 2021년 하반기 이후 실업률이 안정되었다.

한편, 2020~2021년에 이어 30대 여성의 실업률이 등락하는 모습은 주목을 요한다. 2022년 3월 30대 남성의 실업률이 2.2%, 5월 2.6%인 것에 비해 여성의 실업률은 각기 3.3%, 4.2%로 1~1.6%p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2021년 12월, 2022년 1월에 나타난 남녀 실업률 격차가 각기 0.0%p, 0.4%p였던 점을 고려하면, 2022년 상반기의 경기회복은 30대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었다. 그러나 2022년 6월 이후 30대 여성의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10월에는 2.9%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성의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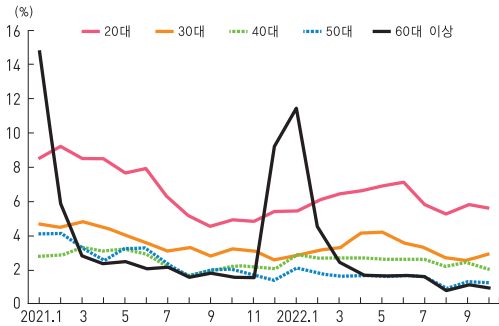


[그림 V-10] 성 및 연령집단별 실업률 변화, 2021.1~2022.10

1) 남성



2) 여성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업률이 2.6%임을 감안하면 그 격차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 여성은 전통적으로 경력단절 경향이 강한 집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고용률과 실업률이 대체로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불완전성을 고려한 고용보조지표 역시 안정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이후 7% 이상으로 급등하면서(보조지표1) 코로나19 국면에서 실질적인 일자리 부족을 우려하게 했으나 2022년 5월 5.9%, 2022년 9월 5.3%로 낮아지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표 V-2).

〈표 V-2〉 각종 고용보조지표 추세, 2019~2022.9

	고용보조 지표1 (%)	고용보조 지표2 (%)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1,000명)	잠재 경제활동 인구 (1,000명)
2019년	6.4	9.3	750	1,703
2020년	7.8	10.0	1,088	1,873
2021년	7.4	9.7	1,070	1,898
2022년				
1월	7.5	9.9	958	1,824
5월	5.9	7.9	843	1,568
9월	5.3	7.1	834	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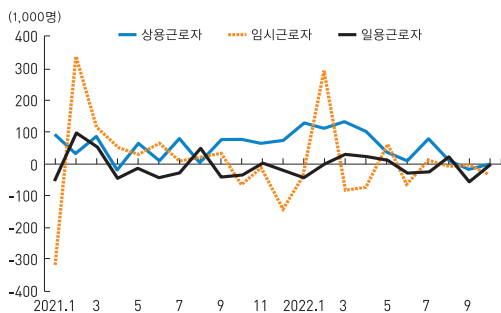
주: 1)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2)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3) 확장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4)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조사대상 주간에 실제 취업 시간이 36시간 미만인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5) 잠재경제활동인구: '잠재취업가능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 희망/가능자인 '잠재구직자'를 합한 인구.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및 월.

취업자 구성

[그림 V-11]이 보여주듯 경기회복이 시작되던 2022년 상반기에는 노동시장 구성의 건전성도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팬데믹 국면에서 고용조정은 주로 임시노동자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 감염병 안정기에는 임시직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고 대유행기에는 임시직이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상용직 노동자는 큰 부침 없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2021년 하반기 이래 임시직을 활용한 고용조정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상용직 노동자 수가 증가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상용직 고용이 증가했다. 다만, 〈표 V-3〉에서 보듯이 2022년 하반기

에 들어 다시 취업자가 약간의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특히 임금노동자 중에서는 임시·일용직 노동자 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림 V-1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변화, 2021.1~2022.10



주: 1) 통계치는 전월 대비 계절조정 취업자 수의 증감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표 V-3〉은 2019년 5월 대비 2022년 5월,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가 모두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약 127만 명이 증가한 임금노동자는 상용노동자였고,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는 감소했다. 한편, 자영업자는 1만 4천 명 증가했는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20만 2천 명 감소하고, 고용원을 두지 않은 자영업자는 21만 7천 명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가 실시된 2022년 8월에는 2021년 8월과 비교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제조업(2만 9천 명), 도소매업(3만 1천 명), 숙박업(2만 3천 명) 등에서는 감소했지만, 전기·운수·통신·금융업(5만 6천 명)에서는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코로나19 기간을 경과하면서 전통적 부문의 고용원 없는 영세 자

영업자는 경기에 따른 오르내림을 보이지만, 운수·통신 분야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되는 흐름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V-3〉 종사상 지위별 각종 취업자 수, 2019.5~2022.8

	2019.5	2022.1	2022.5	2022.8
전체	27,322	26,953	28,485	28,410
비임금노동자	6,818	6,332	6,709	6,686
자영업자	5,683	5,470	5,697	5,690
고용원 유	1,584	1,346	1,382	1,354
고용원 무	4,099	4,124	4,316	4,336
임금노동자	20,504	20,621	21,776	21,724
상용	14,070	15,309	15,719	15,801
임시	4,954	4,237	4,839	4,773
일용	1,480	1,075	1,218	1,15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2022년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 노동자 비중은 37.5%로 2021년 38.4%에 비해 0.9%p 감소했다. 여성은 46.0%로 1.4%p, 남성은 30.6%로 0.4%p 줄었다(표 V-4).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24.6%(여성 30.4%)로 다수를 차지한다. 시간제 노동자는 여전히 여성에서 두드러진다. 전체 여성 취업자 중 26.2%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시간제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18.7시간(여성 18.3시간), 고용안정성을 지닌 비중은 54.5%로 나타나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전형 노동자 비중(9.8%)은 전년 대비 1.0%p 하락했다.

산업별 취업자는 많은 부문에서 전년에 비해 고용의 증가 및 회복세를 보여주었다. 팬데믹 이



〈표 V-4〉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노동자 비중, 2019~2022 (%)

	비정규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전체				
2019	36.4	23.3	15.4	9.9
2020	36.3	22.5	15.9	10.1
2021	38.4	24.6	16.7	10.9
2022	37.5	24.6	17.0	9.8
남성				
2019	29.4	19.6	7.4	9.9
2020	29.4	18.3	8.1	10.7
2021	31.0	19.4	8.8	11.7
2022	30.6	19.8	9.4	10.1
여성				
2019	45.0	27.8	25.2	10.0
2020	45.0	27.8	25.7	9.5
2021	47.4	31.0	26.4	9.9
2022	46.0	30.4	26.2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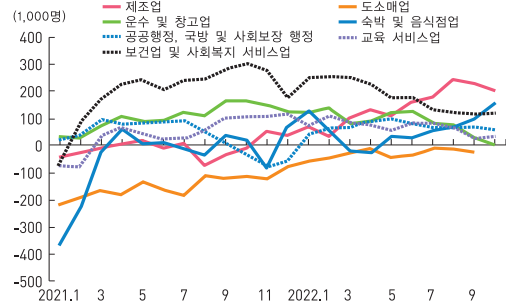
주: 1) 통계치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해당 근로형태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후 꾸준히 줄어든 제조업 취업자 수는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다가 2021년 11월 이후 성장세로 돌아섰다. 2022년 3~5월간 줄곧 전년 동월 대비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가 있었다. 팬데믹 내내 가장 고전을 겪었던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역시 2022년 4월 이후 2019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황이 호전되었다(그림 V-12). 경기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음식·숙박업은 부침을 반복하면서 평균에 수렴하고 있다.

한편, 전년 대비 고용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영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다(한국의 사회동향 2022 「돌봄 부문의 확대와 일자리의 질」 참조). 돌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투자가 계속된다면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할 영역이다.

[그림 V-12] 산업별 취업자 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 2021.1~2022.1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월.

노동시간과 유연노동

2021년 3분기에서 2022년 3분기까지 노동시간 통계는 45시간 이상의 장시간 취업자와 54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취업자가 줄고, 18시간 미만 초단시간 및 18~35시간 단시간 취업자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 경기 변화에 따른 노동시간 증감 양상이 확연하다. 경기와 팬데믹 상황에 대한 사용자의 유연한 대응의 증가 또는 팬데믹 상황에서 시간제 혹은 일감에 따라 일하는 취업자의 증가 양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V-5〉는 2021년 3분기~2022년 3분기 시기에 노동시간 구간에 따른 노동자 규모 변화가 복잡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팬데믹 극성기에 해당하는 2021년 하반기에는 36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노동자가 크게 늘고, 표준근로시간대 및 장시간 노동자가 줄었다. 노동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2022년 1분기에는 54시간



이상 초과시간 노동을 제외한 모든 시간대의 노동자가 늘었고, 2분기에는 그간 크게 증가했던 18~35시간 노동자가 줄었다.

그러나 2022년 3분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21년 동기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했다. 18~35시간 단시간 노동자가 36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크게 축소된 36~53시간 노동자(약 259만 명)를 상당히 흡수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증감으로 포착되지 않던 경기 하락의 영향이 노동시간에서 포착되는 양상이다.

〈표 V-5〉 취업시간별 취업자 수 변화, 2021.3/4~2022.3/4

(1,000명)

	2021년		2022년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1-17시간	205	167	135	17	120
18-35시간	1,468	1,701	86	-29	3,604
36-44시간	-460	-409	766	694	-1,955
45-53시간	-154	-280	156	203	-633
36시간 미만	1,673	1,868	220	-12	3,724
54시간 이상	-217	-315	-80	-6	-347

주: 1) 통계치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임.

2) 전년 대비 공휴일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한 취업시간의 변동 및 다음 연도 취업시간에 일부 기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021년 3~4분기에는 조사대상기간에 대체 공휴일(월요일) 포함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분기.

팬데믹 상황 및 거리두기 완화가 이어진 2021년과 2022년에는 유연근무 양상도 변화했다. 〈표 V-6〉을 보면 팬데믹의 영향이 약화된 2022년에는 전년에 비해 유연근무 이용률이 약간 감소했다. 전체 16.0%의 임금노동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했는데, 남성(17.3%)과 여성(14.4%)

모두 전년 대비 약 1%p 가량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집중 육아기 노동자가 모여있는 30~39세의 활용률이 23.8%로 평균보다 높다. 혼인 형태별로는 오히려 미혼의 활용도가 높다.

유연근무 형태별로는 2015년 시차 출퇴근제, 선택적 근무제, 탄력적 근무제에 쏠려있던 양상이, 2022년에는 다양한 유연근무가 고루 활용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팬데믹 기간 중 상당한 관심이 쏠렸던 재택근무의 경우, 2021년 유연근무활용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2.3%가 활용하는 등 변화를 견인했으나, 2022년에는 전년 대비 5%p 가량 활용비중이 감소해 시차출퇴근제에 비해 활용도가 다소 낮았다.

〈표 V-6〉 유연근무 활용의 변화, 2015~2022

(%)

	2015	2017	2020	2021	2022
전체	4.6	5.2	14.2	16.8	16.0
성					
남성	4.7	5.5	15.9	18.2	17.3
여성	4.6	4.9	12.0	15.2	14.4
연령					
15-29세	3.8	3.9	13.3	16.5	14.6
30-39세	6.5	7.7	19.9	23.6	23.8
40-49세	5.0	5.6	17.1	20.1	19.0
50-59세	4.0	5.0	12.2	15.0	14.2
60세 이상	2.1	1.6	4.9	5.6	5.9
혼인상태					
미혼	3.7	4.2	14.0	17.9	16.7
기혼	5.0	5.6	14.2	16.3	15.7
활용형태(복수응답)					
근로시간단축근무	0.4	9.9	13.1	10.1	11.0
시차출퇴근	42.0	38.4	31.2	29.9	31.7
선택적 근무시간	33.2	31.9	26.4	23.1	24.8
재택 및 원격근무	7.3	5.6	17.4	32.3	27.5
탄력적 근무	26.3	26.0	29.1	27.4	27.9
기타(재량근무 등)	12.3	9.1	10.2	8.7	9.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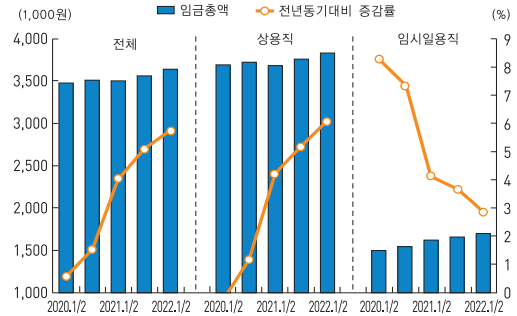


임금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368만 9천 원이었다. 2020년 월평균 임금총액 352만 7천 원에 비교할 때 명목임금은 4.6% 상승했다. 전년 명목임금 상승률이 1.1%였던데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 2021년의 경우 실질임금 상승률은 2.0%로 0.5%에 그쳤던 전년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2018년이나 2019년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3%를 상회했던 것에 비하면 실질임금 상승폭은 다소 작았다. 2022년 8월 현재 임금총액이 370만 2천 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4%의 상승률인데 반해,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7% 상승해 실질임금 하락 경향이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림 V-13]은 종사상 지위별로 반기별 임금총액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정리한 것이다. 상용직의 경우 2022년 상반기 임금은 약 406만 원으로 전년 동기(383만 원) 대비 6.1% 상승했다. 반면, 2022년 상반기 상용직의 42.7% 수준이었던 임시일용직의 임금 173만 원은 전년 대비 2.9% 상승한 것이다. 임금이 낮은 임시일용직의 임금상승률이 상용직에 비해 낮아 격차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기간 상용직의 전년 대비 임금상승률은 해마다 높아진데 반해, 임시일용직의 임금은 해마다 낮아졌다. 그 결과 2020년 상반기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의 임금이 2020년 상반기 44.0%에서 2022년 상반기 42.7%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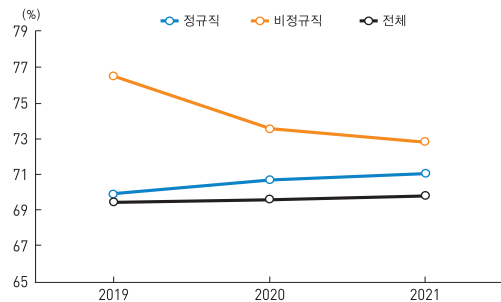
[그림 V-13] 상용직 대비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총액 변화, 2020.1/2-2022.1/2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각 반기.

한편, 성별 임금 격차는 예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남성임금 대비 여성임금의 비율이 69.6%였는데, 2021년에도 69.8%로 0.2%p 상승했을 뿐이다. 단, [그림 V-14]를 보면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당 임금의 남녀 격차는 2019년에 비해 2020년과 2021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14] 남성 대비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의 변화, 2019-2021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 연도.



직종별로는 전년 대비 관리직 종사자의 임금 상승률이 4.2%로 가장 높았던 반면, 판매 종사자(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2.4%), 단순노무 종사자(2.2%), 서비스 종사자(2.0%),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0.7%)의 임금상승률은 평균 임금상승률(2.7%)에 비해 낮았다. 고임금 직종인 관리자와 상대적 저임금 직종인 사무직, 판매직, 단순 노무직 간 임금 격차는 2020년과 2021년간 큰 차이가 없지만, 2021년에는 미세하게 높아졌다.

[그림 V-15]는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현황 및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가입률의 증감을 보여준다. 2022년 8월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7.0%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이중 가입률이 가장 높은 정규직(92.2%)과 가장 낮은 시간제(32.1%) 간의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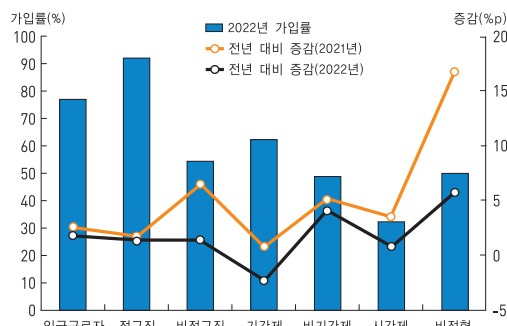
한편, 팬데믹 시기에 증가한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사이 경계가 모호한 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 최근 플랫폼 종사자 중 퀵서비스 기사 및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초기 100일 동안 24만 9,932명이 가입했다. [그림 V-15]의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가 이런 경향을 반영한다. 2021년의 전년 대비 16.8%p 증가에 이어, 2022년에도 전년 대비 5.7%p 증가했다.

노동조합 조직률과 기타 노사관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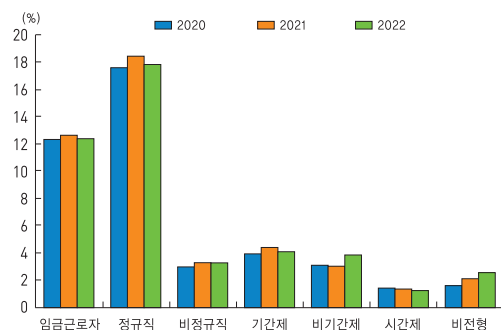
한편, 노동조합 조직률에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2021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간의 증가, 특히 정규직의 경우 0.8%p의 증가가 있었으나 2022년 다소 하락해 202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다만, 한 가지 특기할 점은 팬데믹 상황에

[그림 V-15]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변화, 2021-202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그림 V-16] 근로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변화, 2020-202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각 연도 8월.



서 비전형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아주 낮은 상황에서 소폭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다. 2020년 1.6%에서 2022년 2.5%로 0.9%p 증가했다(그림 V-16).

